

## ■ 연구원 소식

###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여덟 번째 “영상택배” 안내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아시아 공동체

JEBS



여덟 번째 영상택배는 연변대학교에 계시는 김광희 교수님이 전하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아시아 공동체”입니다. 예전의 잣대로 재한 조선족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디아스포라의 시대, 그들이 지닌 다중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는 시간 나눠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믿어봅니다.

##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 1952. 07. 01 )

서민호는 190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보성고보 재학 중 독립운동 지하 유인물 '반도의 목탁지' 배포 사건에 연루돼 6개월 형을 살았고, 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다시 1년을 복역했다. 일본 와세다대 정경과를 나와 미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땀고, 광복 직후 별교읍건국준비위원장과 초대 광주 시장을 거쳐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1950년 그가 제2대 민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어 한국전쟁의 포화가 나라 전체를 뒤덮었다.

정부와 국회가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던 1951년 1월 '국민방위군 사건'을 폭로했고 1952년 '거창양민학살사건' 조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승만 정부와 당시 군부의 부정과 불의에 저항했다.

남북간 전투의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1952년 4월 당시 국회 내무분과위원장이던 그는 여수에서 시민들에게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한 후, 순천시 영동에 있는 평화관이란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국회 내무분과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정세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회의원들의 대화를 옆방에서 엿듣고 있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호위경관이 실랑이를 시작되었다. 옆방에 있던 서민호에게 총알이 날아왔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람을 맞추지 못하고 식당 유리창이 깨졌다. 서민호는 위기일발의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권총을 꺼내 그를 쏘아 사살했다. 이 사건이 이른바 "순천 평화관 사건"이다. 사살당한 자는 현역 대위 서창선이었다.

국회는 서민호의 살인이 정당방위이고, 그를 구속시킨 것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거부하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판단하고 5월 14일 서민호 의원 석방 결의안을 가결했다. 며칠 후 그가 석방되자, 부산시내는 민족자결단·백골단·땃벌떼 등 각종 정체불명의 단체들의 관제 데모로 극도의 혼란을 맞게 되었다.

이들은 "살인 국회의원 석방한 국회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청사를 포위, 습격하였다. 이와 더불어 7개 도의회는 국회해산요구를 결의하고, 지방의회대표는 반 민의국회(反民意國會) 해산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수도 부산의 분위기가 이처럼 살벌해진 가운데,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0시를 기하여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과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공비소탕이라는 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소장 원용덕을 임명했고 석방되었던 서민호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다시 구속되었다.

계엄령 아래 열린 군법회의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130명의 재심요구로 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4.19 혁명 이후 과도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출옥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의원에 당선되고, 민의원부의장에 피선되었다. 1961년 제15차 UN총회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그 해 5월 남북교류를 주장하다가 입건되었으나, 혁명검찰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1963년 자민당 최고위원을 거쳐 민중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그 해 제6대 민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1966년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민주사회당을 창당,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1967년 민주사회당을 대중당으로 개칭, 제6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야당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였다. 같은 해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대관절 무슨 일이 있어서 현역 대위가 국회의원을 향해 총을 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횡행하고 있다. 나름 유력한 것은 이승만이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던 국회의원들을 검박하기 위해 그에 대한 암살시도와 사형 언도를 진행하지 않았을까하는 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순천 평화관 사건"으로 8년동안 옥중에 있던 그는 장남의 혼인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큰아들이 낳은 3명의 손녀 손자 이름을 '치리(治李)' '치승(治承)' '치만(治晩)'으로 짓게 했다. 이승만을 다스리고 다스리고 다스린다... 라는 의미였다고 전해진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두 번째 이야기 “전설의 대승사”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승사 대웅전** | 공덕산 아래를 차지한 대승사는 절치고 아주 넓고 평탄한 마당을 앞에 두었다. 깊은 산중이라지만 대승사에 찾아드는 신도들의 숫자는 분명 그에 비례하리라.

대승사를 품에 안은 사불산은 '공덕산功德山'이라고도 불린다. 인근의 김용사는 운달산에 따로 유서 깊은 터를 열었다. 이 두 절은 백두대간의 턱밑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백두대간은 소백산에서 죽령과 도솔산을 거쳐 대미산을 지나 조령과 이화령을 빛은 뒤, 앞쪽에 희양산을 세우고 속리산을 향해 뻗어 나간다. 이때 대미산에서 남쪽으로 빠져나온 줄기 하나가 여우목고개를 넘은 뒤에 동으로는 공덕산을, 서로는 운달산을 세운다.

대미산 정상에서 공덕산과 운달산 정상까지는 직선거리로 각각 11km와 7km에 지나지 않는다. 백두대간의 넘치는 힘을 가까이서 직접 건네받은 이 산들은 913m와 1,097m로 몸통을 솟아 올렸다. 신령한 백두대간의 기운은 사불산과 운달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일찍이 하늘은 이곳에다 기이한 선물을 내렸으니『삼국유사』3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죽령의 동쪽으로 백 리 가량 되는 곳에 높이 솟은 산이 있다. 진평왕眞平王재위 9년에 홀연히 네 면이 한 길이나 되는 커다란 바위하나가 사방에 석가여래를 새긴 모습으로, 붉은 비단에 싸여 하늘에서 산꼭대기로 떨어졌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 바라보며 경건하게 예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곁에 새로 절을 지어 열도록 하고 이름을 대승사라고 하였다.『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송경하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 스님 한 분을 모셔다가 이절을 맡긴 뒤, 깨끗이 청소하고 바위를 공양하면서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산을‘역덕산亦德山’이라 하고 혹은 사불산이라고도 한다. 스님이 입적한 뒤에 장례를 지냈는데, 무덤에서 연꽃이 피어났다.

진평왕 재위 9년은 서기로 587년에 해당한다. 위 이야기로 미루어‘공덕산’은 부처님의 또 다른 공덕이 내린 곳이라고 해서 처음에는‘역덕산’이라고도 불리다가, 언제부턴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모양이다. 고려 말기의 학자 목은牧隱이색李穡이 남긴「윤필암기潤筆庵記」에서는 지공화상指空和尚이 공덕산이란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그렇지만‘사불산’이란 이름은 여전히 쓰이고 있는 중이다.

진평왕이 사불산에 절을 창건하고‘대승사’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묘법연화경』에 밝은 스님을 모셔 왔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묘법연화경』은 흔히『법화경』이라고도 약칭된다. 이 경전은 철저하게 대승불교다운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경전의 가장 핵심으로 여겨지는‘회삼귀일會三歸一’논의만 보더라도 그렇다. ‘회삼귀일’은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乘’의 준말로 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보살승菩薩乘으로 분류되는 삼승三乘은 결국 누구나 골고루 해탈을 이루는 일승一乘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귀하고도 소중한 선언이다. 이에 법화경은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족들에 의해 읽혀지며 대승경전 가운데의 꽃으로 꼽히게 되었다.

일주문 형식의 대승사 안내판이 서 있는 곳이 윤�필암과 대승사로 갈라지는 삼거리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이곳에 차를 세우고 약1.5km를 걸어 올라가 대승사를 구경한 다음, 숲길을 거쳐 사불바위와 윤�필암, 묘적암을 차례로 구경하고 내려오면 좋다. 어쩌다가 대승사로 올라가는 차편을 얻어 타면 아주 큰 행운이다.

일주문을 거쳐 대승사 경내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장독들이 눈에 들어온다. 대승사는 장담그기 체험 템플스테이를 행하는 사찰이다. 그래서 많은 향아리들이 경내 입구를 차지하였다.

『대승사사적기』에 따르면, 대승사는 조선 중기 이후에 여러 번의 불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먼저 1604년(선조37) 대웅전 서쪽에 승당을 중창하였고, 다시 1651년(효종2) 대웅전 동쪽의 선당을 중창하였다. 이후에도 1630년(인조8)에서부터 1703년(숙종29)에 이르는 사이에도 몇 차례 중수가 있었으니, 당시에 벌써 대웅전, 응진전, 관음전, 시왕전, 금당, 요사, 종각, 일주문, 누각 등이 갖춰진 대가람이었다.

1922년 여름에는 화재로 여러 건물이 사라졌는데, 1927년 옛 모습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1956년 1월에 다시 화마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 극락전, 명부전, 산신각만 겨우 남았다. 사부대중들은 힘을 모아 대웅전, 응진전, 지대방, 일주문 등을 중창하였다.

대승사에는 원래 상적암, 대인암, 묘적암, 윤�필암, 보현암, 문수암, 반야암, 사불암, 미륵암의 아홉 암자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묘적암, 윤�필암, 상적암만 남았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이 매발톱의 군락지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진즉에 거쳐 온 대승사 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곧장 윤�필암으로 오르는 길가에는 지천으로 깔렸다. 매발톱은 고개 숙인 꽃송이 뒷부분이 마치 먹이를 움켜쥔 매의 발톱같이 생겼다. 생긴 모양이 희한한 데다가 예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꽃이기도 하다. 주된 색깔은 검색으로, 자주색이나 연보라색, 백색, 노란색, 붉은색을 지닌 것들도 있다. 이곳에는 평소 보기 드문 자주색이 대부분이다.

**다음 주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세 번째 이야기 “목각탱에 얽힌 사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